

KIA 테이블세터 최고의 조합을 찾아라



해즐베이커



이명기



나지완



최원준



김선빈



1·2번 타자 출루율 부실에 공격 실마리 못풀어
김선빈-해즐베이커, 이명기-최원준 시너지 시험
환상 조합 찾아야 공격 물꼬 ... 4월 성적 판가름

‘테이블 세터’의 발에 KIA 타이거즈의 4월 성적이 달려있다.
KIA는 지난 3월 치른 8경기에서 3승 5패에 그치면서 2019시즌의 출발이 좋지 못했다.
믿었던 선발진이 초반 싸움에서 밀리며 어려운 경기를 펼치기도 했지만, 공격도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밤상’이 부실했다.
KIA는 김선빈을 톱타자 내세워 개막전을 치렀다.
김선빈은 사범경기 6경기에서 17타수 7안타(타

율 0.412)의 좋은 타격감을 과시하면서 개막전 1번 타자로 낙점됐다.
여기에 상승세를 보인 해즐베이커를 원래 구상대로 2번으로 앞당겨 배치해 김선빈과 ‘테이블 세터’를 구성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김선빈이 개막 후 3경기 동안 안타를 신고하지 못하고, 볼넷 2개와 상대의 실책으로 4차례 출루하는 데 그쳤다. 해즐베이커도 3경기에서 3안타로 체면치레는 했지만 4개의 삼진도 적었다.

테이블 세터의 발이 묶이면서 KIA는 개막과 함께 3연패를 기록했다. 연패 기간 김선빈과 해즐베이커는 3득점에 그쳤다.
27일 모처럼 김선빈이 바쁘게 움직였다.
이날 김선빈은 첫 타석에서 볼넷으로 출루한 뒤 도루까지 선보였다. 이어 해즐베이커가 우측 담장을 넘기는 마수결이포를 터트리면서 KIA는 개막 후 처음으로 선제점을 가져갔다.
김선빈은 이날 내야 안타와 중견수 키 넘기는 2루타로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볼넷도 하나 추가하는 등 4차례 출루에 성공했다.
팀은 9-4 승리를 거두며, 연패에서 탈출했다.
두 번째 승리가 기록된 28일에도 테이블세터의 움직임이 좋았다.
28일 경기에서는 나지완이 2번 역할을 맡았다. 전날 해즐베이커가 결승 홈런을 기록했지만 이후 네 타석에서 내리 삼진을 당하면서 7번에 있던 나

지완과 자리를 맞바꿨다.
이날 김선빈이 볼넷 하나와 안타 하나를 만들었고, 나지완은 멀티히트와 볼넷 하나를 보태면서 두 차례 홈을 밟았다. 팀은 6-4로 연승에 성공했다.
29일에는 1번 타자에 변화가 있었다. 김선빈이 대퇴부 통증으로 휴식을 취하게 되면서 최원준-나지완으로 테이블 세터진이 구성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나란히 삼진 두 개씩만 기록하는 등 이날 1루 베이스를 밟지 못했고 경기는 3-6패로 끝났다.
30일에는 이명기와 해즐베이커가 공격 전면에 섰다.
1·2번 타순에서 안타는 나오지 못하고, 볼넷 2개만 기록했다. 경기는 역시 2-6패였다.
31일에도 새로운 조합이 구성됐다. 이명기가 1번을 맡고 최원준이 그 뒤에 섰다.
이날은 이명기가 멀티 히트를 기록했고, 최원준

은 3개의 볼넷을 골라내면서 2득점에 성공했다. 경기는 4-2, KIA의 승리로 끝났다.
테이블세터의 표정에 따라 KIA의 승패도 갈리는 모습이다.
3월 8경기에서 KIA 1번 타순의 성적은 31타수 6안타 5볼넷 5삼진 3득점이었다. 타율은 0.194에 그쳤고, 출루율도 팀 평균 출루율(0.330)을 밑도는 0.306이었다.
2번 타순에서도 타율 0.194, 출루율 0.306, 7득점이 기록됐다. 볼넷은 5개, 삼진은 15개나 기록했다. 테이블세터의 부진 속에 KIA는 3월 3승을 수확하는 데 그쳤다. 테이블세터의 발에 눈금이 가는 이유다.
한편 KIA는 4월 첫 경기였던 2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이명기와 해즐베이커로 1·2번 타순을 채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남자농구-NBA 스타들 한판 대결

농구월드컵 앞 8월 리투아니아·체코 등 4개국과 평가전

미국프로농구(NBA)에서 뛰는 선수들이 8월 국내에서 한국 남자농구 국가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른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2일 “8월 국내에서 리투아니아, 체코, 앙골라 대표팀을 초청해 우리 대표팀과 4개국 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대회 장소는 미정이다.
비시즌 국내에서 외국 국가대표팀을 초청해 국제 대회를 치른 것은 2006년 월드바스켓볼 챌린지(WBC) 이후 약 13년 만이다.
당시에도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남자농구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미국, 리투아니아, 터키, 이탈리아 대표팀을 초청해 한국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렀다. 이후로는 2014년 뉴질랜드 대표팀과 홈 앤드 어웨이로 평가전을 치른 바 있다.
이번에 한국을 찾는 리투아니아와 체코, 앙골라

는 국제농구연맹(FIBA) 랭킹 6위와 24위, 39위에 올라 있는 팀들이다. 한국의 FIBA 랭킹은 32위다.
이번 대회 역시 2006년처럼 올해 8월 31일 중국에서 개막하는 농구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 본선에 출전하는 팀들의 ‘프리 월드컵’ 성격으로 한국에서 4개국 대회가 열리게 됐다.
세계 랭킹 6위 리투아니아는 요나스 발란슈나스(멤피스), 도만타스 사보니스(인디애나) 등 NBA 현역 선수들이 포진해 있다.
또 24위 체코에도 워싱턴 워저즈 소속의 토마사 사토란스키가 속해 있어 한국 팬들 앞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이번 농구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러시아, 나이지리아와 함께 B조에 편성됐다. 리투아니아와 체코는 ‘가상 러시아전’으로 치르고 앙골라는 나이지리아와 비슷한 스파링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프로농구 시즌이 끝난 뒤 소집, 8월 평가전과 중국에서 열리는 농구월드컵을 대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최지만 ‘쾌조의 타격감’

MLB 첫 2경기 연속 멀티히트...강정호는 무안타

폴타임 메이저리거에 도전하는 최지만(사진)이 2경기 연속 멀티 히트를 터트렸다.
최지만은 2일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경기에서 3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 4타수 2안타를 치고 1득점을 올렸다.
최지만은 개막전에서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으나 이후 3경기 연속 안타이자 2경기 연속 멀티 히트를 뽑아냈다.
2016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최지만이 2경기 연속 멀티 히트를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지만은 1회말 1사 1루에서 콜로라도 선발 채드 벤티스에게 헛스윙 삼진을 당했지만, 4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추구 직구를 밀어쳐 중전 안타로 설욕했다.
콜로라도는 좌타자 최지만을 상대로 내야수들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옮겼으나 타구는 보란 듯이 수비 시프트를 뚫었다. 최지만은 후속 타자 브랜던 라우의 좌월 투런 홈런 때 홈을 밟았다.
7회말 무사 1루에서는 바뀐 투수 DJ 존슨에게 깨끗한 중전 안타를 쳐냈다. 팀은 콜로라도를 7-1로 꺾고 4연승을 질주했다.

스코어가 벌어진 탓에 콜로라도의 ‘필승조’ 오승환과 최지만의 맞대결은 성사되지 않았다.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는 914일 만에 홈경기에 나섰으나 안타는 나오지 않았다.
강정호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홈 개막전에서 4-4 동점이 된 8회초 2사 2루 상황에 3루 대수비로 교체 출전했다.
강정호가 안방인 PNC 파크 그라운드를 다시 밟은 것은 2016년 9월 30일 시카고 컵스와 홈 최종전 이후 914일 만이다.
강정호는 8회말 선두타자 모란의 솔로포로 스코어가 5-4가 된 이후 후속 타석에 들어섰다.
강정호는 마이크 마이애스의 2구째 슬라이더를 견어 올렸으나 중견수 뜬공으로 잡혔다.
피츠버그가 9회초 1실점 하며 경기는 연장으로 흘렀다.
강정호는 연장 10회말 1사에서 세인트루이스의 우안 던 히스에게 3구 삼진으로 물러났다.
피츠버그는 연장 11회까지 가는 혈투 끝에 5-6로 패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뉴스
NAVER
공식 포스트에서 보세요